



대한민국뉴스
연합뉴스에서
시작합니다.



www.yonhapnews.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T 02 398 3114 F 02 738 0820



연합뉴스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최대 취재망을 가동해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통신사로서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글로벌 뉴스통신사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뉴스통신을 대표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해외뉴스 > 외국어뉴스 > 북한·재외동포·다문화뉴스
- > 지역뉴스 > 멀티미디어뉴스 >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진흥

Contents

- 02 Intro
- 04 CEO MESSAGE
- 06 HISTORY
- 08 해외뉴스
- 10 외국어뉴스
- 12 북한·재외동포·다문화뉴스
- 14 지역뉴스
- 16 멀티미디어뉴스
- 18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진흥
- 20 연합뉴스 상품 및 서비스
- 22 계열사 / Q & A

HISTORY



1980's 뉴스의 새로운 태동

- 1980 12 합동, 동양통신 등을 통합한 연합뉴스 창립
- 1981 01 창간호 발행
- 1986 09 서울 아시안게임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1988 09 서울 올림픽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1989 01 연합뉴스문 뉴스 50개 해외공관에 송고 개시

1990's 뉴스 프런티어

- 1991 11 그래픽뉴스 서비스 개시
- 1993 09 연합뉴스TV(YTN) 설립
- 1998 12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로 사명 변경
- 1999 01 북한뉴스 전문 '내외통신' 흡수 - 통합

2000's 대한민국 뉴스의 희망과 미래

- 2000 06 자회사 '(주)연합뉴스포맥스' 설립
- 2002 06 한일 월드컵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2003 04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03 08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
- 2004 03 영상 서비스 개시
- 2004 04 중국어 서비스 개시
- 2004 05 KTX 영상정보 서비스 개시
- 2005 06 일본어 서비스 개시
- 2005 10 뉴스통신진흥회 공식 출범
- 2005 12 미주총국 개설
- 2006 06 아랍어 서비스 개시
- 2007 03 AREX 영상정보 서비스 개시
- 2007 09 스페인어 서비스 개시
- 2009 05 유럽총국 개설
- 2009 10 프랑스어 서비스 개시
- 2009 12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

2010's 글로벌 뉴스통신사로의 도약

- 2010 04 아태뉴스통신사 정상회의 개최
- 2010 11 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2011 03 보도전문채널 '(주)연합뉴스TV' 설립
- 2011 12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개국
- 2012 12 연합뉴스-VNA 공동 보도사진전 개최
- 2013 10 연합뉴스 신사옥 준공(종로구 수송동)
- 2014 09 인천아시안게임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2015 07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2016 03 IOC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관뉴스통신 협약 체결
- 2016 04 연합뉴스 북한포털 개설
- 2016 11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차기(2019~2022년) 의장사로 선출
- 2017 01 공항철도 영상정보(디지털사이니지) 운영 사업 실시
- 2017 04 뉴스 챗봇(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실시
- 2018 02 평창동계올림픽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 2018 04 남북정상회담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해외 뉴스

전 세계 88개 뉴스통신사와 뉴스 교류



- | | | | | | |
|---------------|------------------|---------------|------------------|----------------------|-----------------|
| AAP 호주 | ARMENPRESS 아르메니아 | ENA 에티오피아 | LANA 리비아 | PETRA 요르단 | TASS 러시아 |
| AFP 프랑스 | ATA 알바니아 | epa 독일 | LANKAPUVATH 스리랑카 | PNA 필리핀 | TELAM 아르헨티나 |
| Agerpres 루마니아 | AzerTAc 아제르바이잔 | ONA 가나 | LUSA 포르투갈 | PPA 파키스탄 | TNA 태국 |
| AKP 캄보디아 | Bakhtar 아프가니스탄 | HINA 크로아티아 | MAP 모로코 | Prensa Latina 쿠바 | Trend 아제르바이잔 |
| Anadolu 터키 | BELTA 벨라루스 | IANS 인도 | MENA 이집트 | PTI 인도 | Ukrinform 우크라이나 |
| ANA-MPA 그리스 | BERNAMA 말레이시아 | IP 파라과이 | MIA 미국도미니카 | QNA 카타르 | UNB 방글라데시 |
| ANGOP 앙골라 | Bloomberg 미국 | FNA 이란 | MVA 이란 | Reuters 영국 | UNI 인도 |
| ANI 인도 | BNA 바레인 | JJI 일본 | MONTSAMR 몽골 | RSS 네덜 | UPI 미국 |
| ANP 네덜란드 | BSS 방글라데시 | KABAR 키르기스스탄 | MTI 헝가리 | Rossiya segodnya 러시아 | UYPRESS 우루과이 |
| ANSA 이탈리아 | BTA 불가리아 | KAZFORM 카자흐스탄 | NAN 나이지리아 | SABA 예멘 | UZA 우즈베키스탄 |
| ANTARA 인도네시아 | CNA 대만 | KONA 북한 | Notimex 멕시코 | SANA 시리아 | VNA 베트남 |
| AP 미국 | CNA 카프로스 | Khabar 카자흐스탄 | NTB 노르웨이 | SPA 사우디아라비아 | WAM 아랍에미리트 |
| APA 오스트리아 | CTK 체코 | KPL 라오스 | ONA 오만 | TANJUG 세르비아 | Xinhua 중국 |
| APP 파키스탄 | dpa 독일 | KUNA 쿠웨이트 | PA 영국 | TAP 튀니지 | |
| APS 알제리 | EFE 스페인 | Kyodo 일본 | PAP 폴란드 | TASR 슬로바키아 | |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한반도 현안을 우리 시각으로 취재보도해 정보주권 수호

국내 최대인 25개국, 33개지역, 59명의 해외취재망 구축



외국어 뉴스

한반도 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제작해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서 역할 수행

국내 최대인 70여명의 외국어뉴스 전문기자를
통한 6개 외국어 서비스





북한· 재외동포· 다문화뉴스

북한·통일정보의 원천으로서 북한뉴스를
균형있게 보도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과 뉴스 공급계약 체결,
북한매체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720만 재외동포 관련 뉴스정보를 한데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민족 통합에 기여**

다문화뉴스 보급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권익신장 등 **사회 통합 달성**





지역 뉴스

전국종합 기사 등을 통해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

국내최대인 140여명의 지역취재망 가동,
전국 13개 지역 취재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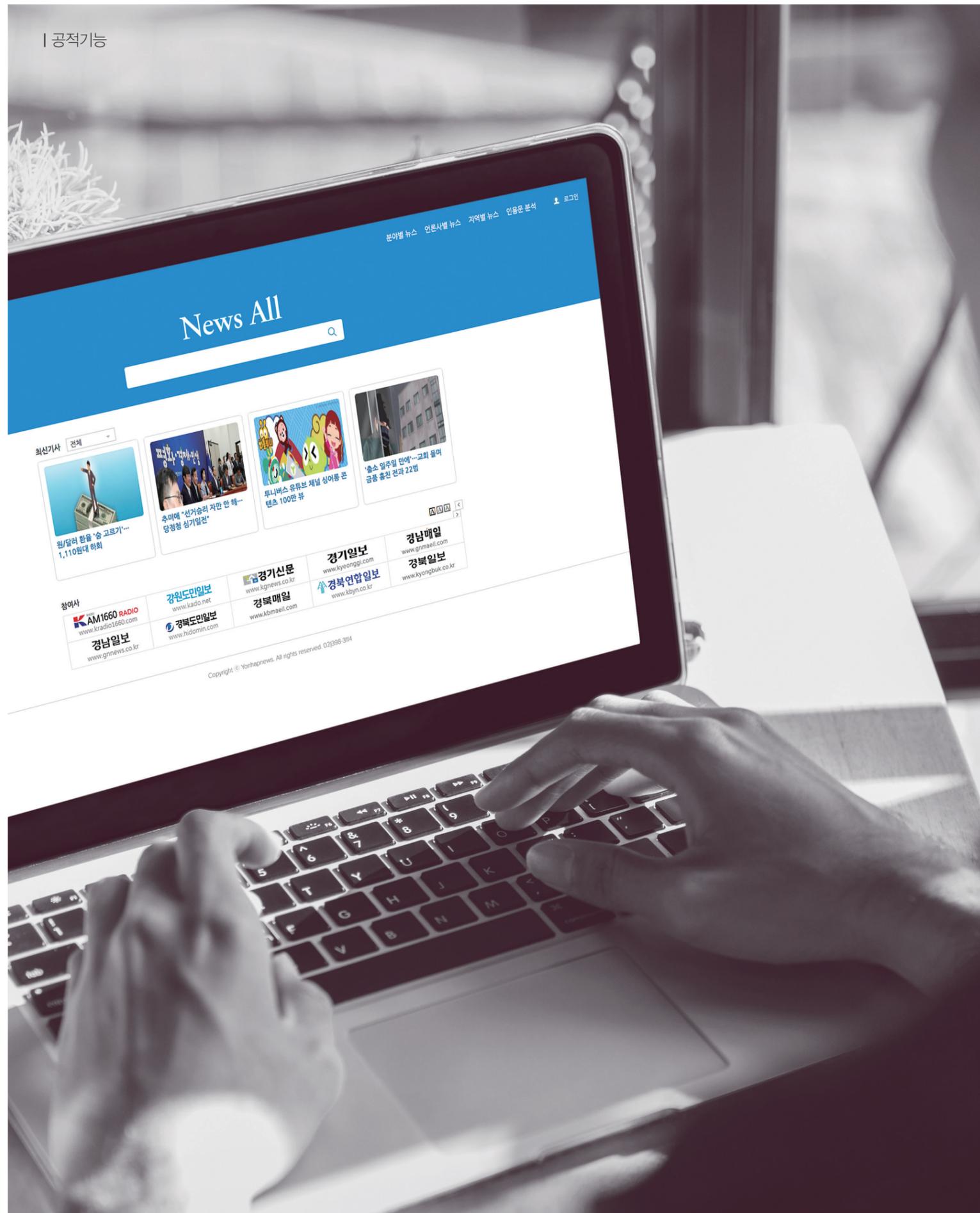


멀티미디어 뉴스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뉴스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인공지능 기반 저널리즘을 구축해 **국내 언론의 뉴미디어 환경 선도**





미디어 및 뉴스통신산업 진흥

미디어융합인프라 OpenAPI 사업을 통해
지방 **중소언론 등과의 협력 추진**

미디어 **상생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미디어에
광고, 협찬 등 지원

언론 관련 주요 학회 및 뉴스통신진흥회 학술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





주요 연합뉴스 상품 및 서비스

신문, 잡지, 인터넷, 방송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뉴스 상품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뉴스상품

국내 최고의 종합뉴스와 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전용 단말기 서비스인 '뉴스리더', 모바일뉴스 플랫폼인 '모바일 뉴스리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단말기 서비스 '프리미엄뉴스'가 있습니다.

인물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및 북한 주요인물의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뉴스리더, 프리미엄뉴스, 제휴를 맺은 포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며, 이 가운데 2만 5천여 명을 엄선해 '한국인물사전'으로 제작,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판상품

국내외 여행지와 명소를 소개하고 각종 레저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지 '연합 이매진'(Yonhap Imagine)과 국내외 각 분야별 주요 사건, 사고와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록한 국문 '연합연감' 및 영문 'KOREA ANNUAL' 등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KTX(고속철도)와 AREX(공항철도)의 영상정보서비스는 최상의 콘텐츠와 최적의 환경을 통해 승객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국내외 속보, 문화 정보, 다큐멘터리,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객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연합뉴스는 국민들도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yonhapnews.co.kr), 모바일(m.yna.co.kr)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사는 독자적인 취재 조직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합니다.

미국의 AP, 영국의 로이터, 프랑스의 AFP, 중국의 신화, 일본의 교도 등 한 국가를 대표하는 뉴스통신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입니다.

계열사 현황

(주)연합뉴스TV

(주)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 채널 23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www.yonhapnewstv.co.kr

(주)연합인포맥스

(주)연합인포맥스는 연합뉴스에서 1991년 시작된 인포맥스 사업을 계승해 2000년 6월 출범한 금융정보 제공 회사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리얼타임 금융 뉴스와 데이터 및 첨단 분석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www.einfomax.co.kr

(주)연합기술정보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자회사입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1992년 설립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해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 & A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사는 독자적인 취재 조직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합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언론계에서 뉴스통신사는 신문, 방송 못지않게 고유한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입니다. '세계 3대 뉴스통신사'로 통하는 AP(미국), 로이터(영국), AFP(프랑스)를 비롯해 중국의 '신화', 독일의 'dpa', 러시아의 '타스', 일본의 '교도' 등 한 국가를 대표하는 뉴스통신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합뉴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을 맡았나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이전부터 공적 기능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산에 적합한 취재 조직을 보유하고 국내외에 광범위한 배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취재망과 지역 취재망이 대표적입니다. 또 생산된 콘텐츠를 국내외에 배포하기에 연합뉴스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연합뉴스는 2018년 현재 국내 언론사 190여 곳, 해외 뉴스통신사 88곳, 민간기업 28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20여 곳 등 1천여 곳이 넘는 배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받는 정부구독료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구독료의 90%는 '공적 기능 수행 보전금'이고 나머지는 정보이용료입니다. 공적 기능 수행 보전이라는 말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재' 성격의 뉴스 콘텐츠를 연합뉴스가 대신 생산해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구독료의 대부분은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콘텐츠 생산에 투입됩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200명에 육박하는 해외(59여명)와 지방(140여명) 취재망을 갖췄으며, 70여명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5개 유엔 공용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국내 뉴스를 해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 뉴스를 24시간 다루고, 재외동포와 다문화 뉴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뒀습니다. 일반 언론사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용해서는 회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기업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소명의식을 토대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정부가 뉴스통신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서 정부가 그 나라의 대표 뉴스통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 어권 국가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권의 글로벌 뉴스통신사에 맞서 자국의 관점을 담은 뉴스를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정보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AFP는 전체 매출의 40% 가량이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가 바스티유 오페라단 1년 예산 정도의 구독료로 프랑스를 전세계에 알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AFP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은 결과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뉴스통신사인 EFE와 이탈리아 ANSA 역시 정부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05년 다른 뉴스통신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지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